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성농협 땀땀하면 정보공개 왜 못하는가?

농협법 상 의무 공개 불구하고 갖은 핑계 대며 공개 안해



본보는 지난 2022년 10월14일 장성농협 협동조합에 교육지원사업비 및 장성농협 임대계약서와 하나로 마트 구매물건 업체 명단 정보공개 요구 했으나 농민과 함께, 군민과 함께하는 장성농협은 공문을 통하여 관련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검토 결과 농협운영의 공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리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불성실한 답변을 보였다.

또한 공문에는 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사업활동 내용의 공개만이 아니라 농협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조

합원과 고객들에게 농협경영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농협법 65조, 제107조, 제112조 및 장성농협 정관 140조의2에 농협의 운영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장성농협 교육지원 사업비용 제2(당)기 총금액 262,845,280원에서 영농지원사업비 98,850,300원, 영농지도 사업비 42,109,890원, 생활지도사업비 2,503,090원, 교육 사업비 2,769,000원, 홍보선전 사업비 23,339,000원, 복지지원 사업비 93,274,000원을 자세한 내용을 공개 하라는 본 기자의 요구에 장성

농협 담당자는 자신의 핸드폰 녹음을 요구함과 압박감 준다고 불쾌한 표정과 다른 요구조건이 있느냐고 하며 조합원도 아니면서 왜 그러나 식으로 법적으로 공개하지 못한 다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농협 자체 감사가 2명 있는데 검증을 받아다며 농협감사 요구할 시 응할 수 있다고 했다.

장성농협 교육지원 사업비용 사용에는 명절 때 조합원 선물비용과 애경사비, 복지, 재해 등이 지출 되는데 과연 투명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런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장성농협협동조합은 지난 10월 26일 오전11시 농협 1층 대회의실에서 농협법 제35조 및 정관 제37조에 의거 2022년 제2차 임시 대의원 회의를 개최 하면서 정관 변경안건으로 마찰이 있는 과정에 회의석상에서 의장(조합장)이 장성농협 자체 감사를 퇴출시키는 일도 일어났다.

한편 장성군에 사는 조합원 김모(62)씨는 “장성농협협동조합이 땀땀하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겠다 농협이 구린데가 있어 공개를 못한다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란다”며 “장성 농협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이 모씨는 “조합장이 농협 직원 생활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해서 조금은 무엇인가가 있어서 공개 하지 않다”며 “장기 집권을 없애야 한다”고 열변하였다.

기동취재본부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에 ‘오피스텔 공급 폭주’ ‘업무용’ 미명아래 ‘주거용’ 경계 모호...잇따른 입주 승인에 반발

한국전력 본사를 비롯해 16개 이전공공기관이 들어선 전국 최대 규모의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에 ‘업무용’이라는 미명아래 사실상 상업용지에 들어선 주거용과 다를 바 없는 오피스텔 공급이 폭주할 전망이다이어서 논란이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분하는 큰 차이점은 ‘전임신고 가능 유·무다’. 주거용은 가능한 반면 업무용은 안 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임신고가 안 되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지난해 2월 밝힌바 있어서 두 오피스텔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다.

잇따른 업무용 오피스텔 입주 승인이 도마 위에 오른 나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다.

에너지·농생명·지식·정보통신산업 관련 사무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교육연구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도의 준주거용지로 2015년 당시 상업용지 보다 최대 24배 싼 가격에 공급됐다.

당시 상업용지 최고 분양가는 ‘3.3㎡(평)당 3000만원’에 달했던 반면, 클러스터부지는 124만원 선에 분양됐다.

이 때문에 고분양가의 상업용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해 공급한 사업자들의 반발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학연클러스터 입주 승인 업무를 전담하는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은 지난 2021년 12월 7일 A사가 신청한 ‘업무용 오피스텔’ 1개 단지 796실(사무소 11실 별도 포함)에 대해 처음으로 입주 승인을 했다.

A사는 2020년 7월 업무용 오피스텔 외 용도로 처음 입주 승인을 받았지만 2021년 두 차례 변경 신청을 거쳐 그해 12월 오피스텔로 최종 입주 승인을 받았다.

전남도의 클러스터 부지 입주 승인 절차 처리 시한은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A사가 신청한 마지막 변경 신청 건은 승인까지 불과 8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최종 3개월을 끈 타 입주승인 건과 비교 시 신속하게 처리됐다.

3년 전 상가 주민들과 이해충돌로 2년 간 갈등을 빚은 클러스터 부지 공공산후조리원 내 금지된 상업시설 설치를 위해 주민 공청회를 열었던 것과 비교해도 초스피드 승인이 이뤄졌다.

A사에 대한 첫 입주 승인 이후 산학연클러스터 내 오피스텔 입주 승인은 봇물 터지듯 이

어졌다.

B사가 3개 단지 총 1177실에 대해 신청한 오피스텔 입주 승인이 2021년 12월(1건), 2022년 5월(1건), 6월(1건)에 또 이뤄졌기 때문이다.

B사 이후에도 3개사가 지식산업센터 내 연구개발시설 입주승인을 받은 상황이며, 일각에선 입주승인 변경 신청을 통해 오피스텔을 신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나주혁신도시에는 상업용지 11개 필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5089실이 준공돼 공급됐지만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공실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주로 연구시설과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무소,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야 할 클러스터에 ‘업무용’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운 오피스텔 1973실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공급 과잉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당초 산학연 집적화를 목적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클러스터 ‘일반 업무시설’ 임지 기준의 첫 번째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공공기관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청사’, 세 번째는 ‘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중 산학연클러스터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지원시설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시설’, 마지막 네 번째는 ‘공공기관과 그 지사의 본사와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업무용 오피스텔’ 입주 승인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네 가지 임지 기준 중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세 번째 규정을 적용했을 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한 사실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전문가 C씨는 “전남도가 나주혁신도시 준공 이후 산학연클러스터에 허용 하지 않았던 오피스텔 입주 승인을 갑자기 빗장을 풀고 잇따라 내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수분양자들에게 의해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로 사용 내지는 임대될 수 있어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재환기자

강진만 생태공원 고니 폐사체서 ‘AI항원 검출’ 11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고병원성 확진 여부 검사 진행 중

전남 강진만 생태공원 내 야생조류 폐사체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전남도가 방역에 비상에 걸렸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강진만 남포배수펌프장 앞 데크길 하류에서 발견된 고니 폐사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1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3~4곳의 검사 기관을 거쳐야 해서 3~5일 소요될 전망이다.

AI 청정 지역을 유지해 온 전남도는 항원이 검출되자 강진만 생태공원 탐방로를 즉시 폐쇄하고 500m 이내 지역에 대해 출입금지 조치

를 했다. 이와 함께 반경 10km 이내를 특별방역 지역으로 정하고 고병원성 AI 확산에 준하는 선제적 방역조치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시·군 소독장비 160대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하고, 10km 내 가금사육농가 11곳에 대해 선제적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축산 차량과 가금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24곳과 농장초소 50곳의 운영도 강화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권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